

(주)현대정공

롤러제작 세계 제일 기술 인정받아

폐플라스틱 이용 목재제조기로 환경보호도



▲ 박세희 (주)현대정공 대표이사

다른 미사여구가 필요없는 회사.
스스로 인정하기 보다는 다른 거래처에서 인정해 주는 업체.

지난 1970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에서 화성산업이란 상호로 시작하여 72년 성동구 성수동으로 이전하면서 상호도 서울연마로 바꿔 롤러의 연마기술에 나섰던 (주)현대정공은 78년 5월 영등포구 당산동 2가에 공장을 신축하고 이전하면서 현대정공사로 개명, 롤러연마 및 생산업체로서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다.

현대정공은 84년 수출입업 등록과 함께 수출에 나서는 한편 그해 10월에는 부천시 괴안동에 분공장을 신설, 수출품 개발에 나섰다. 현재 위치한 안산의 반월공장은 87년에 이전하면서 도금공장의 증축을 병행, 롤러업계의 선두주자로써 명성을 높여 가는 발아의 터가 되었다.

연마에서 제작의 최고봉으로

정밀연마(평삭)부터 시작해 롤러연마의 대명사로 군림하기까지 현대정공이 소비한 시간은 그리 길다고 할 수 없지만 그들이 기울인 노력은 다른 업체에 비해 몇 수십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3년전 롤러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해 선보인 현대정공의 냉각롤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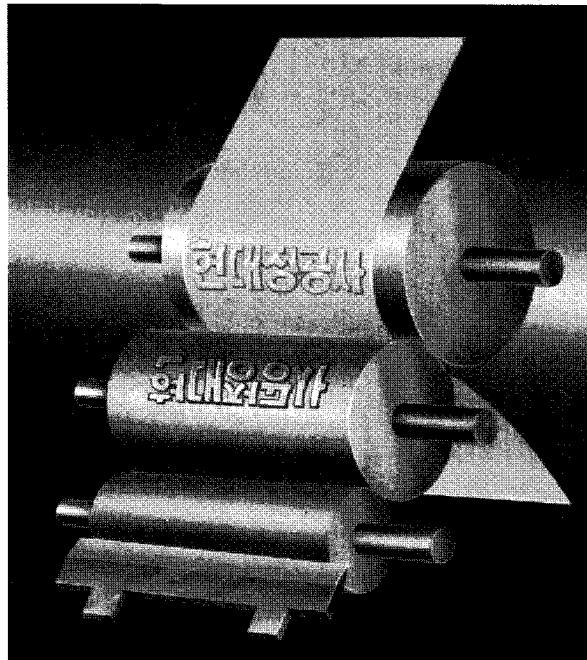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으로 롤러 제작 시 열을 계산하여 두께, 재질을 꼼꼼히 따져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의 질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 8월초 다국적기업인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에 4천만원 상당의 롤러제품을 수출하는 개가를 올렸는데 이는 대만, 체코, 이태리에만 주던 외주업체중에 현대정공이 참여하는 기회가 됐고, 기존 외주국가들보다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주문이 계속 몰리고 있는 상태이다.

현대정공을 탐방하던 날도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부터 일본 미쓰비시에서 파견된 실무자가 롤러생산에 대한 점검 및 기술논의가 15일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미쓰비시가 수출하고 있는 롤러의 전량을 생산해 달라고 요청을 받기도 한 현대정공은 현재의 시설 및 인원으로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소화가 가능한 만큼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물론 장비를 보완하면 요구물량을 모두 처리해 줄 수 있으나 중소기업으로써 자금동원과 인력보강에 어려움이 많아 당분간은 눈앞에 보이는 수출물량을 놓쳐야 하는 형편이다.



◀ 현대정공의 주력품인
롤러



▲ 현대정공 기술의 핵심인 설계실

미쓰비시가 오더를 직접 내리기는 현대정공이 처음일 만큼 이 회사의 기술적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평가이며, 추후 활성화 여하에 따라서는 직수출이 가능함에도 여러 가지 장애로 발만 구르고 있을 따름이다.

롤러가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었다는

박 사장은 “비디오테이프의 자성체 테이프도 롤러로 코팅하고 전자기판용도 롤러로 작업을 할 만큼 정밀도가 필요한 롤러 제작은 아직 국내에는 연구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대기업들이 국내 기술수준을 인정해야 됨에도 국내 기업들을 배척하다보니 기술진보에 어려움

이 많고 중소기업들이 주로 생산하게 돼 연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번에 현대정공에 파견되는 일본 미쓰비시의 직원들 1인당 하루 경비가 30만엔이 소요됨에도 이들은 이것이 기술축적을 위한 투자, 또는 경비절감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 만을 보아도 가치관과 의식의 차이를 느끼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와 차이가 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는 감이 들었다.

박 사장은 일본의 이런 장점을 보면서 기술과 판매의 국경이 없어진 시점에서 어느정도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와 주변 상황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처음과 같이 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밝혔다.

오로지 기술개발에만 전념

현대정공은 현재 40여명이 현장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조직은 기술부와 생산부로 간단하게 나뉘어져 오로지 좋은 제품만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과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이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철판선정, 응력제거 등 절차를 거쳐 가공하다보니 가격차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롤러는 싼 제품도 많지만 결국 싼 제품은 싼만큼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작업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기술력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현대정공은 요즘에는 심각한 고민에



▲ 최고의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대정공 기술진과 현장

(표) 보유설비 현황

A. 연마부

DESCRIPTION	SIZE(㎜)	Q'TY	MAKER	ORIGINE
ROLLER GRINDING M/C (CROWN 연삭)	@1200×6000	1	SHIBAURA	JAPAN
	@580×4800	1		USSR
	@400×2500	1	CHURCHIL	ENGLAND
UNIVERSAL GRINDING M/C	@580×2500	1	OKUMA	JAPAN
	@350×3000	1		"
	@270×1200	1	TONGIL	KOREA
ROLLER SUPER FINISHING MACHINE	@800×3000	1		JAPAN
SURFACE GRINDING M/C	500 ^w ×2500	1	HITACH	JAPAN
	@500TABLE	1		"
SURFACE LAPPING M/C	@500TABLE	1	KIMURA	JAPAN

B. CNC PART

CNC LATHE	@800 3000	1	IKEGAI	JAPAN
CNC LATHE	@280 600	1	KUMDAN	KOREA
CNC MACHINING CENTER	W500 800	1	FADAL	U.S.A
CNC INTERNAL GRINDING A/C	@250 400	1		

C. 기계부

BORING M/C LATHE	@160SPINDLE @1000×4500 @720×3300 @480×1600 @350×1200	1 1 1 2 3	COLLET TAKISAWA OKUMA WHACHUN	W.GERMANY JAPAN " " KOREA
MILLING M/C	W600×700×1400 W500×600×1000 W260×1100	1 1 2	DUSAN	KOREA
RADIAL DRILLING M/C	1600ARM	1	DUSAN	"
DRILLING M/C	1/2"-3/4"	7	DUSAN	"
TAPPING M/C	1"(PT, NPT)	1	BONGSHIN NAMBUK	"

빠져 있다.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설비가 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산지역은 공장이 많아 인력수급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이다.

이를 대변하듯 최근에는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플라스틱목재를 만드는 기계를 개발해 환경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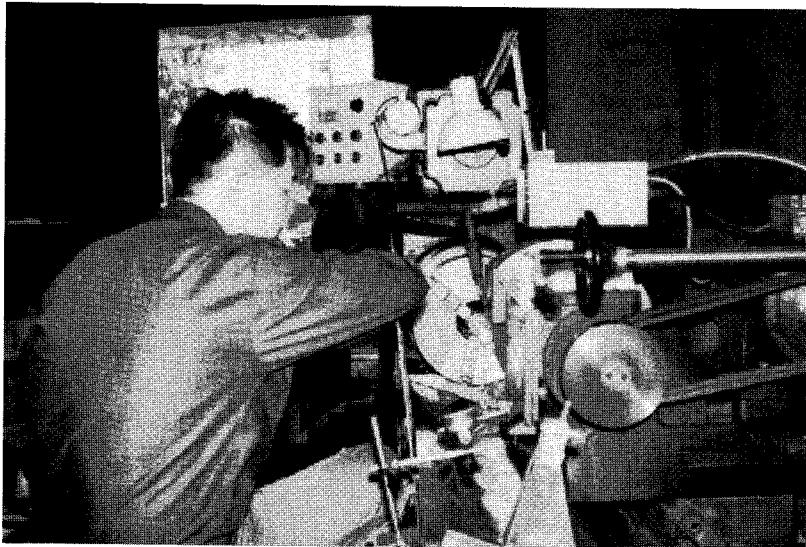
박 사장은 이 기술을 실용화 하기 위해 우선 미주지역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수출에서 나는 이익금으로 국내 폐플라스틱처리시설을 갖춰 환경문제 해결에 일조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해도 분리수거 문제, 제품 판로문제 등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어 여러가지 고민에 빠져 있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잡기가 쉽지 않다.

모든 중소업체가 그렇지만 현대정공이 겪는 인력问题是 심각하기가 중증에 포함된다. 롤러 제작은 자동화가 안되고 사람의 기능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능인력이 아쉬운 형편이고 외주관리를 해도 외주업체의 문제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주문이 밀려와도 주문양만큼 모두를 소화할 수 없어 가능한 양을 선별해 작업을 해주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주문량 밀려도 소화 못해

박 사장이 롤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한양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부터로 지도교수의 권유로 냉난방 설계를 하다 당시리발전소 건축에 참여했고, 미국회사에서 냉난



▲ 롤러 연마에 열중하고 있는 기능인력의 날카로운 작업진행 광경

방 설계를 하여 기술축적이 이루어지자 70년 귀국하여 회사를 창립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쟁이로써의 길을 가게 된다.

박 사장은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었는데 하나 둘 업체가 생겨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어려움이 가중돼 갖가지 생각끝에 첨단제품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 기술개발에 나선 것이 지금의 현대정공을 있게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계란을 많이 먹으려면 닭을 잘 키워야 되듯이 회사가 잘 되려면 직원들을 잘 대우해줘야 합니다. 아주 미미한 부분이지만 우리 회사는 이 익금의 공동분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한 박 사장은 모두가 가족이란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자,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 그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볼 때면 안타까움이 더 하다고 한다.

박 사장이 요즘 세태를 보고 속이

상한 것은 자기 소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자기만의 욕심을 채우자는 생각이 아니겠느냐며 젊은 세대들의 의식을 꼬집는 동시에 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사상누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 인력 수급(기능인력 배출제도 시행),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말뿐 아닌 실제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의 입안 및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력수급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능인력에 대한 인식이 천시에 가깝기 때문에 기술인이 되려는 사람이 적다”며 보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을 타파하는 교육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면에서도 현재 은행들의 문턱이 너무 높아 제대로된 업체가 무너질수밖에 없는 기이한 실정이지만 외국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별

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실무담당자가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정공이 앞서 나가고 있는 비결은 따로 있지 않다. 책임경영과 좋은 제품 개발에 대한 노력이 전부이다. 특히 새로운 아이템 구상과 기술습득을 위해 외국에 자주 나가 많은 것을 보고 익힐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다.

그런 재산이 모여 일본에 롤러를 수출하게 됐고 이번을 계기로 롤러만큼은 외국에 발주를 주지 않고 국내에서 전량 생산에 나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현대정공은 내년에는 시설을 늘려 롤러의 주문량을 모두 생산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일만이 유일한 취미라고 밝히는 박 사장은 “가정과 사회생활에는 보탬이 덜 될지라도 나같은 사람도 있어야 잘 흘러가는 것이 공동체의 본질”이라며 “현대정공에서 생산하는 롤러는 축적된 기술로 상대회사에 맞도록 설계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수요자 만족도가 높다고 자랑하며 이는 수요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 진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수요자들이 권위의식과 우월감을 갖고 대할 때 비애를 느낀다는 박 사장은 아집과 고정관념이 깨지고 수요자와 제작업체가 상호 보완되어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펴력했다.

남들이 인정해도 아직 멀었다는 대답으로 더 나은 기술을 향해 정진하는 현대정공의 내일은 세계를 앞서 뛰는 선구자의 그 모습으로 투영된다. ■

오선진기자